

토마토 반장 이완두

정윤하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토마토를 키워 볼 거예요. 토마토 기르기를 대표할 반장이 필요한데, 이완두! 토마토 재배 반장 한번 해 볼래요?”

선생님이 나를 꼭 집어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나는 토마토 재배 반장이 되었다. 토마토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가장 싫어하는데 말이다.

모두가 반장인 반 만들기. 담임 선생님의 제안이었다. 우리 반은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다. 인사를 잘하는 인사 반장, 칭찬을 잘하는 칭찬 반장, 책을 많이 읽는 독서 반장 등 각자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반을 대표해서 반장이 될 수 있다. 반 친구들은 자기가 될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모두 반장이 되었다. 나만 빼고.

“완두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 없어요?”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다. 그냥 이완두다.

“반장이 된 걸 축하해. 토마토 반장 이완두!”

역시! 소문은 빠르다더니. 하굣길에 옆 반 3학년 2반 학급 반장인 쌍둥이 동생 이자두가 아는 척을 했다. 이자두는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목소리도 크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다. 나랑은 정반대다. 딱 하나, 내가 그 녀석보다 앞선 게 있다면 10분 먼저 태어났다는 거다.

“야, 토마토 반장이 아니라 토마토 재배 반장이야!”

놀리는 기분이 들어 괜스레 자두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왜 화부터 내? 난, 네가 반장이 돼서 좋단 말이야.”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자두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반장이 돼서 하나도 좋지 않다. 내가 왜 토마토 재배 반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이 너 토마토 싫어하는 거 아세요?”

“모르지. 그냥 우리 반에서 나만 아무 반장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시킨 거야.”

“우와, 나처럼 치열하게 반장 선거도 안 하고 꿈으로 반장이 된 거네.”

맞다. 우리 반 모두는 꿈으로 반장이 됐다.

“이자두, 내가 재배 반장 된 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나는 자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자두는 나를 붙잡으며 물었다.

“왜 비밀로 해야 하는데?”

실망하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끄럽다. 쌍둥이 동생은 학급

을 대표하는 반장이고, 쌍둥이 오빠인 난 고작 먹지도 않는 토마토를 기르는 재배 반장이니 말이다.

“그냥. 토마토 싫어하는데 먹으라고 할까 봐.”

아무렇게나 돌려댔다. 자두는 의외로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며칠이 지나도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토마토 씨앗 봉투와 흙, 화분을 나눠 주셨다. 나는 토마토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봉투를 슬쩍 열어 보았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분홍색 씨앗이 들어 있었다. 화분에 흙을 담고 흙뻑 젖게 분무기로 골고루 물을 뿌려 주었다. 조그만 토마토 씨앗 다섯 개를 엄지손가락 깊이로 화분에 모두 심었다.

“각자 자기 화분에 사랑을 듬뿍 주면 토마토가 쑥쑥 자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쁘게 키워 봅시다. 자, 그럼 재배 반장!”

선생님이 날 불렀다.

“완두가 토마토 재배 반장이니까 대표로 관찰 일지를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공책 한 권을 주셨다. 공책 표지에는 ‘토마토 기르기 관찰 일지’라는 글자와 ‘재배 반장 이완두’라고 적혀 있었다. ‘재배’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공책을 받고 손가락으로 ‘재배’를 가려 보았다. ‘반장 이완두’라는 글자만 보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재배 반장으로 각오 한마디 해 볼까?”

선생님은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만 쳐

다본다. 입이 움직이지질 않는다. 달리기할 때처럼 가슴이 쿵쿵쿵쿵
똥다. 시간이 그대로 멈춰 버린 것 같다. 그때였다.

“쪽쪽쪽 쪽쪽.”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관찰해서 우리 반 토마토가 모두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의 반 친구들을 살폈다. 각자 화분을 보느라 내 말은 듣지 않
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다고 놀릴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방
금 들은 이상한 소리는 뭐지?

“쪽쪽쪽 쪽쪽.”

또 한 번 소리가 났다. 분명 내 토마토 화분에서 나는 소리였다. 곧
바로 화분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쪽쪽쪽 쪽쪽.”

씨앗이 물 먹는 소리 같았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물었다.

“화분에서 나는 소리 들려?”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앞에 앉은 친구도 뒤에 앉은 친구도 화분에서 어떤 소리도 안 난
다고 했다. 더 물어보면 이상한 애로 볼 것 같았다.

“쪽쪽쪽 쪽쪽.”

우리 반 친구들 화분 모두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데, 나 빼고 아무
에게도 안 들린단다. 그렇다면 혹시 내게만 들리는 소리일까? 아무

래도 내가 친구들보다 잘하는 걸 찾은 것 같다. 나는 씨앗 소리가 잘 들리니까.

토마토 재배 반장이 된 이후로, 쉬는 시간만 되면 화분들이 놓인 창가로 간다. 씨앗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큰 소리를 내는 씨앗도 있고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를 내는 씨앗도 있다. 소리에 따라 분무기로 물 주는 양도 다르게 한다. 어떤 화분에서는 “쪽쪽쪽” 소리가 나고, 또 다른 화분에서는 “쪽쪽” 소리가 난다. 소리가 작게 들리는 화분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중앙 자리로 옮기고, 물도 듬뿍 주었다. 씨앗 소리를 듣고, 관찰 일지를 적는 게 점점 재미있어졌다.

“이완두!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해? 너 때문에 나까지 일찍 등교해야 하잖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자두가 화가 난 듯 말했다. 재배 반장이 된 이후로 화분을 관리하고 관찰하기 위해 일 등으로 학교에 가다 보니 자두가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쌍둥이니깐 등하교를 언제나 함께한다.

“근데, 너희 반 토마토 싹 났어? 우리 반 토마토는 지난주부터 싹 나기 시작했는데.”

자두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진짜야? 싹이 얼마큼 났는데?”

“콩나물 머리만큼?”

믿을 수가 없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자두 반 교실로 뛰어갔다.

“우와, 진짜네. 싹이 났어!”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쳤다. 토마토 화분마다 어두운 흙 사

이로 초록빛 잎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다. 얇은 줄기와 잎에는 보송보송 솜털도 나 있었다. 아기같이 작고 여린데 어떻게 흙을 뚫고 올라왔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그때였다. “보옹~ 보옹~”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처음 듣는 소리다. 혹시 씨앗에서 싹이 날 때 나는 소리일까? 우리 반 화분에서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당장 우리 반으로 뛰어왔다. 우리 반 토마토 화분에서는 씨앗이 다 죽었는지 시커먼 흙만 보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화분을 보러 갔지만 소리가 들리는 화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급식 시간. 서둘러 밥을 후다닥 먹고 교실로 왔다.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하나에 귀를 갖다 댔다.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햇볕을 너무 쬐게 했나 보다.

내가 우리 반 토마토 화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토마토 씨앗들이 솟아오르지도 못하고 죽어 버렸다. 나는 더는 재배 반장이 될 수 없다. 가방에서 관찰 일지 공책을 꺼냈다. 여전히 ‘재배 반장 이완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재배 반장’ 글자를 손으로 가렸다. 그냥 ‘이완두’ 그게 나다.

방과 후, 친구들이 모두 교실을 빠져나가기만 기다렸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선생님과 나만 교실에 남았을 때, 관찰 일지를 들고 선생님에게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토마토 재배 반장 그만둘게요.”

선생님은 놀란 듯 나를 똑바로 보았다.

“이유가 뭐지?”

나는 울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꺾 참았다. 이유를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저, 사실 토마토 엄청나게 싫어해요. 또 토마토 기르기도 실패했어요.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데, 반장은 아닌 것 같아요.”

간신히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말을 하고 나니 수학 문제 풀 때보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깨끗해졌다.

“알았어. 그렇게 해.”

나는 종일 고민했는데, 선생님은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다. 이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관찰 일지 공책을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았다.

“반장은 관두더라도, 관찰 일지는 완두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지.”

“저 때문에 우리 반 토마토는 싹이 안 나고 모두 죽었는걸요. 옆 반은 싹이 다 났다고요.”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말했다.

“옆 반은 우리 반보다 토마토 씨앗을 이틀 먼저 심었어. 조금 기다리면 우리 반 화분에서도 싹이 날 거야.”

“근데, 우리 반 씨앗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걸요!”

나도 모르게 엄청 큰 소리로 말했다. 울음도 그쳤다.

“완두는 화분을 관찰하면서 씨앗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었구나.”

선생님은 책상에 놓인 관찰 일지 공책을 펼쳐 보았다. 일기장을 보여 주는 것처럼 조금 부끄럽고 민망했다.

“어제까지 ‘쪽쪽쪽 쪽쪽’ 하는 소리가 났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옆 반 화분에서는 ‘뽕옹~ 뽕옹~’ 소리가 나요.”

선생님은 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반 토마토 씨앗들은 아무래도 완두를 닮은 것 같네. 조금 늦게 기지개를 켜려나 보다. 씨앗들이 신호를 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

“그럼 씨앗들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마도.”

나는 갑자기 신이 나서 어깨가 으쓱거렸다.

“선생님이 완두가 쓴 토마토 기르기 관찰 일지를 쪽 읽어 보니 완두는 아주 섬세하게 관찰을 잘하는구나!”

내가 관찰을 잘한다고?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풀렸다. 선생님은 펜을 꺼내 들더니 관찰 일지 공책에 쓰인 ‘재배 반장 이완두’ 글자에서 ‘재배’를 지우고 ‘관찰’이라고 썼다.

“관찰 반장 이완두.”

그냥 ‘반장 이완두’ 보다 ‘재배 반장 이완두’보다 ‘관찰 반장 이완두’가 내게 꼭 맞는 반장처럼 느껴졌다. 선생님께 관찰 일지를 다시 받아 들고 나는 교실 문을 나섰다. 교실 앞에는 자두가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자두가 볼멘소리를 했다.

“미안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안 해도 돼.”

나는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토마토 재배 반장이 됐다고 말해도 돼?”

“아니, 오늘부터는 관찰 반장이야.”

자두는 가우똥하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눈치다.

“어쨌든, 관찰 반장 된 거 축하해.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는지 몰라.”

지난번과는 다르게 자두의 축하가 아주 기분 좋게 들린다. 나는 관찰을 잘하는 관찰 반장 이완두다.

[토마토 기르기 관찰 일지 - 관찰 반장 이완두]

○○월 ○○일 ○요일 날씨: 햇님이 짹짹

관찰 및 활동 내용:

와, 드디어 우리 반 첫 새싹들이 솟아났어요.

“뽕옹~ 뽕옹~.”

“뽕옹~ 뽕옹~.”

씨앗들이 하루 종일 돌림 노래를 해요.

콩나물 머리만 한 크기에 색깔은 연둣빛.

햇빛을 받으면 형광색으로 변신도 해요.

풀 냄새도 조금 나요.

화분마다 씨앗 다섯 개씩 심었는데,

나오기 싫어 늦잠 자는 씨앗들이 아직 있어요.

“얼른 일어나.”

물과 햇빛으로 깨워요.

“뽕옹~ 뽕옹~.”

“뽕옹~ 뽕옹~.”

활동 소감:

새싹들아, 토마토 열매가 열려도 난 너희를 절대로 먹지 않아.

사실은 토마토를 싫어하거든. 그러니 걱정 말고 쑥쑥 자라! 사랑
해. ^^